



최혜진, 롯데 오픈 우승 최혜진(24)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무대에서 약 2년 7개월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혜진은 4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 오픈(총상금 8억원·우승상금 1억44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4개를 기록해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친 최혜진은 정상에 등극했다. /뉴시스

광주시, 제24회 시장기 축구대회 개최

축구동호회 56개팀 2500여 명 참가...소통·화합



광주시는 4일과 6일 2일간 광산구 보라매축구장 등 4개 구장에서 '제24회 광주광역시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축구동호회 56개팀 2500여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 축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유치부부터 60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여성부 등 7개 종별 선수들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축구 동호인들 이 유감없이 도전정신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광주시는 7개 축구장을 운영하는 등 시민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회사에서 "축구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인기 스포츠다"며 "축구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친목과 화합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KIA, 6회 6득점으로 2연패 탈출

KIA 타이거즈가 6회 6점을 몰아치며 백이닝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무너트렸다.

KIA는 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솔 KBO리그 롯데와 경기에서 6-0으로 이겼다.

2연패를 끊어낸 KIA는 6위(23승 24패)를 유지했다.

연이틀 홈 구장 매진(2만2290명) 속에 주말 3연전 싸늘이를 노리던 3위 롯데(29승19패)는 3연승이 무산됐다.

양 팀 선발 투수 KIA 이의리와 롯데 한현희가 5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펼치며 팽팽한 흐름이 펼쳐졌다.

분위기가 바뀐 건 6회초다.

KIA 선두타자 고종욱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물꼬를 트고 후속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우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쳐 '0의 균형'을 깼다.

롯데는 투구 수가 79개에 불과한 한현희를 내리고 두 번째 투수 김진욱을 빠르게 투입했지만 KIA 타선을 막아낼 수 없었다.

KIA는 계속된 무사 2루에서 최형

롯데에 6-0 승리...6위 유지
이의리, 무실점으로 시즌 5승째



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롯데에 10대 2로 승리한 KIA 투수진이 자축하며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다.

우의 중견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보태고, 김선빈의 번트 안타로 무사 1, 2루를 연결했다. 롯데는 다시 한번 마운드를 김도

규로 교체했다. 그러나 찬스에 들어선 이우성이 바뀐 투수 김도규의 초구를 공략, 2타점 우중간 2루타를 날려 KIA가 4-0으로 달아났다.

KIA의 맹공은 계속됐다. 신범수의 번트 안타로 이어진 1사 3루에서 김규성의 우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보탠 KIA는 2사 2루에서 류지혁의 중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다. 스코어는 6-0.

롯데는 마지막까지 KIA 마운드를 공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5회 말 볼넷 2개로 일군 무사 1, 2루에서 반손으로 물러난 게 두고두고 아쉬웠다.

이의리는 5이닝 2피안타 4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5승(3패)째를 챙겼다.

KIA 타선은 15안타를 쏟아냈다. 소크라테스가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중심타자 역할을 했고, 이우성이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

한현희는 5이닝 6피안타 1볼넷 4탈삼진 2실점으로 시즌 5패(4승)째를 떠안았다. /뉴시스

전남도청 女펜싱, 국가대표선발전 금·은·동

여자에빠 김향은 최정상...사브리 최세빈 은메달



전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3 펜싱 국가대표선발전 선발대회'에서 전남도청 펜싱팀 김향은, 박소형, 최세빈이 예매 개인전과 사브리 개인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입상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자에빠 개인전에 출전한 김향은과 박소형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향은 결승에서 이신희(강원도

청)을 15:7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에빠 개인전에서 박소형은 결승에서 김향은(전남도청)에 14:15로 패해 아쉽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3월 펜싱월드컵 여자 사브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최세빈은 결승에 진출했으나 전하영(서울시청)에 11:15로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안세영, 中허빙자오 꺾고 태국오픈 정상

올해 4번째 우승...결승전서 허빙자오에 2-0 완승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간판 안세영(21)이 중국 허빙자오를 꺾고 태국 오픈 정상에 오르며 올해 4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여자 단식 세계 2위 안세영은 4일(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태국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슈퍼 500)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5위 허빙자오를 2-0(21-10 21-19)으로 이겨 우승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1월 인도 오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그리고 3월 전영오픈에 이어 4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는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뉴시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탁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FIT[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